전남도 "여순사건 조사 기한 연장" 특별법 개정 건의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 9% 불과…연말까지 20%로 올려
10월 합동 추념식·평화문학상 공모 등 전국화 사업에 매진

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7월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순사건 조사 법적 기한 연장과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깊이있는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감안,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화위 통보 758명에 대해 직권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두 배 이상 끌어 올려 고령인 유족의 오랜 염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전국 여순사건 유족이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화합하는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오는 10월 19일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유족, 정부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추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행사 선정, 부대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공모작 심사 후, 10월 합동추념식 추모기간과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차원에서의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 누계 5천 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올바른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복절 태극기 달아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둔 12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들과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김치, 세계 한식당서 만난다

광주시, 세계한식총연합회와 협약
한인행사 연계 김치축제 홍보 협력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김치 및 식품의 해외진출 협력을 위해 세계한식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임종택 세계한식총연합회 총회장(LA협의회장), 주원일 수석부회장(청도협의회장), 이종석 기획본부장(홍콩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18개국 29개 도시에 있는 한식당협의체로,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홍보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세계한식총연합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김치 및 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해외 한식당·특산품 매장 연계 광주 김치 및 식품의 판매·공급 ▲해외 한인행사 연계 광주김치와 김치축제 홍보를 위해 협력한다.

임종택 세계한식총연합회 총회장은 "한식은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해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다"며 "우수한 품질의 광주 김치와 식품을 적극 홍보하고 공동구매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한식총연합회 등의 노력 덕에 광주가 김치의 본고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며 "광주의 김치와 식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구도심에 복지·문화·체육시설 조성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통합돌봄센터·육아나눔터 등

광주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돌봄과 소통'의 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으로 추진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정수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안평환·정다은 시의원, 임종국 북구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의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주민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북구, LH와 협업해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고령화 및 도심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북구 오치권역에 주민의 복지·문화·체육시설 충족을 위한 복합공간 건립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이 투입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는 오치주공1단지 내 유휴공간에 지상 3층 연면적 2683㎡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공유주방, 노인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2층에는 스터디카페, 프로그램실1, 주민공동작업장을,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프로그램실2 등 주민이 함께 복지·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돌봄공간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맞닿아 있다"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돌봄으로 확장된 통합돌봄 시즌2처럼 이 돌봄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일이 다양하게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동구 산수동, 남구 양림동에 추가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관광 인기 체험상품 반값에 이용하세요"

전남관광플랫폼 앱 활용 1+1 블루투어 특별행사

전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의 5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출시했다.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뉴문마리나 요트체험, 여수의 녹테마레, 플로팅마리나와 아그리나 요트체험, 바다루지, 담양의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할인 상품은 지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휴가철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블루투어 체험상품 프로모션을 운영, 3000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전남관광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상품을 1+1 할인 제공해 많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다양한 관광지와 체험상품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전남관광플랫폼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1 블루투어' 상품 외에도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고향애 여행가자' 상품을 출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